

천로역정(The Pilgrim's Progress) 시리즈 4.

“ 십자가의 영성 ”

(로마서 6:6-14)

간혹 호텔에 가면 숙소의 키가 신용카드와 비슷한 플라스틱 카드로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신기한 것은 청소하는 직원들이 그 수많은 방을 드나들 때 모든 방을 열 수 있는 오직 한 개의 키를 가지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키를 일명 ‘마스터키’라고 부릅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의 모든 복잡한 문제를 단번에 풀 수 있는 마스터키는 과연 없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의 수만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만 가지 해결책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한 가지의 필요충분하고도 완전한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늘의 문제와 세상의 문제를 푸는 마스터키입니다. 나아가 가정과 교회, 사회와 나라의 문제를 푸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이 세상에 참된 공의가 실현되며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처음 엄마를 따라서 예배당에 들어와 강단에 있는 커다란 십자가를 보면서 천진난만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기 큰 더하기(+) 표가 있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고, 십자가를 삶에 온전히 적용하는 자에게 십자가는 인생의 커다란 더하기 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십자가의 능력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전 1:18). 여러분! 십자가는 인간에게 맹목적인 죄책감을 심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는 것을 굳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선포된 진정한 자유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존 번연의 『천로역정』을 보면, 주인공 크리스천이 십자가 언덕에 서는 순간 무거운 짐을 벗고 마침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등장한 세 명의 천사가 십자가의 은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첫째 천사는 ‘죄 사함’을 선포합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가장 큰 위기가 바로 죄라고 진단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수많은 문제와 고통도 결국 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 되어 죄책감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도바울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십자가는 참된 해방입니다.

둘째 천사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혀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올 때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아름다운 옷 즉 완전히 새로운 신분을 주십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워준 것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주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이요 ‘성도’라고 부르시며 거룩한 신분을 주십니다. 우리는 굴벵이가 고치를 벗고 하늘을 날아오르듯 낡은 과거를 청산해야 합니다.

셋째 천사는 이마에 ‘성령의 인’을 치고 ‘말씀의 두루마리’를 전달합니다.

이마에 인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영원토록 온전히 책임지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손에 쥐여준 두루마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자유를 얻은 성도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인생의 나침반으로 삼고 걸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죄 사함을 선포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의의 옷을 입혀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쳐 주시는 이 놀라운 십자가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3절은 말씀합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과거에 도둑질을 하던 사람이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도둑질을 멈추는 소극적인 결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땀 흘려 열심히 일하는 삶이 동반될 때 진정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헌신하고 쓰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학교 현장에서, 직장인은 일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주님을 위한 의의 무기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유혹을 향해 달려가던 우리의 발걸음이 이제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전도자의 복된 발걸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유행가를 부르던 입술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입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굳게 여기며, 날마다 십자가의 영성을 품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